



필리핀 팜가시난팀 최종 보고서

Contents

1 | 활동지 _ 덤프사이트

2 | 활동지 _ 푸가로

3 | End _ Poverty

4 | 홈스테이

5 | Pang-Good Work Camp

6 | 안양 그리고 Amelia

7 | 에세이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덤프사이트에 처음 갔을 때 모습은 충격적이 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사람이 주거할 것이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몇 년 사이 많아진 쓰레기 양 때문에 길이 사라져 주로 담벼락 위를 길 삼아 걸어갔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단순 방문부터 시작되었다.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놀고 상처 치료를 하며 사람들과 친해졌다. 매번 갈 때마다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신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덤프사이트는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활동지이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종이와 색연필로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곧잘 그렸다.

굉장히 밝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놀았다.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은 대부분 좋은 집이었다. TV와 같은 가전 제품과 창문이 많은 큰 집들을 그렸다.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아이들이 뛰어 놀기 좋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인지 다친 아이들이 많았다. 상처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픈 곳을 말하며 찾아온다.



아이들은 종이 접기,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종이 비행기, 왕관, 목걸이같은 간단한 것들로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그림 카드를 이용한 알파벳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의 집중력은 짧았고 어수선했다.



모자이크로 알파벳 수업을 진행했다. 그림 카드를 이용한 것 보다는 집중을 더 잘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들의 집중력은 짧았다. 단순히 우리와 같이 뛰어 노는 것을 좋아했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밥과 국을 준비해서 가져갔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밝고 활발한 아이들은 먹고 나서 뛰어 놀았다. 어른들도 맛있게 드셨고 음식은 금세 동이 났다.

조금 늦게 와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새치기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

어디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절대적 빈곤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웠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체크할 예정이었지만 또래에 비해 작은 아이들에게는 많은 양을 줘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일정과 맞물려 피딩 프로그램을 1회 밖에 실시하지 못하였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아무래도 활동을 길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어떤 결말이 나더라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이
겠지만 너무 질다.

그 소란했던 시간들 안에 많은 것들을 얻고
잃었지만 나름의 성취와 조그마한 결과물로
좋은 기억들이 많다.



1 활동지 _ 덤프사이트

미력하고 미비한 우리들이 모여 다 같이 그 소란한 것들에 대해 맞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풍파와 변화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잡아주는 것들이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됐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릴 기억해준다. 그 짧은 시간이 마냥 헛되지는 않았다.
그 시간 동안의 우리가 여전히 그 곳에 남아있다.



2 활동지 _ 푸가로

2 활동지 _ 푸가로



푸가로 활동은 수업 참관으로 시작하였다.

덤프사이트에 비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푸가로도 쉽지는 않았다.



아이들 중 대다수가 보호자와 동행하여 활동 진행에 있어서는 수월했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개입이 많아서 아이들이 아닌 보호자가 전부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2 활동지 _ 푸가로



자신을 동물로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그리기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칠판의 동물을 따라 그리기 급급했다.



알파벳 모자이크를 진행하였을 때는 아이들이 좀 더 집중했다.

그림 카드를 사용했을 때 보다는 알파벳을 더 잘 기억하는 듯 했다.

2 활동지 _ 푸가로



그린 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옮겨 새로 건설하였다.

긴 시간의 부재 끝에 오랜만에 다시 활동하는 것이라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졌다.

날씨가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YMCA 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했다.

현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기에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활동지 _ 푸가로

땅을 파고 벽돌을 쌓았다.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층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침수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중간에 아이들의 난입이 종종 있어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시간 관계상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없었던 점이 굉장히 아쉽다.



2 활동지 _ 푸가로

푸가로에서도 역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단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기도 주 활동 사이트인데 덤프사이트에 비해 주민들과 많은 교류도 하지 못했다.

많은 것들이 아쉽지만 이 곳에도 우리가 같이 했던 고민들과 활동들이 남아있다.

매사 끝은 아쉽고 그 것을 남겨두고 돌아서는 것은 힘들다.



3 End _ Poverty

3 End _ Poverty

빈곤 퇴치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9월에 진행된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빈곤 포르노가 재생되는 것을 보고 빈곤포르노를 주제로 결정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빈곤 포르노에 대한 설명과 생각 나누기, 빈곤에 대한 설명과 생각 나누기를 주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3 End _ Poverty



일시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였다. YMCA스텝과 봉사자들을 주목표로 삼았으나 의외로 많은 스콜라들이 참석하였다.

발표 장소는 YMCA 건물 안에서 진행하였는데 장소가 협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3 End _ Poverty



간단한 자기소개, 팀 소개 및 주제소개를 마치고 빈곤 포르노 영상을 재생하였다.

그 뒤 이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다.



사람들 중 다수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며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빈곤포르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는 진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3 End _ Poverty



빈곤에 관한 설명을 진행할 때는 참여를 유도하여 호응이 좋았다.

빈곤을 어렵지 않고 실감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빈곤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에는 모두가 참여하였다.

서로의 빈곤을 공유하며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활동을 통하여 빈곤을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된 후 지미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다.

3 End _ Poverty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중 하나였다.

자신의 어려움을 많은 타인들의 앞에서 말하고 서로 나누며 공유하고 공감했다.

용기를 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했고 속 깊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살기 때문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이야기 끝에 한 곳을 같이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 따뜻하고 감사한 자리였다.

좋은 방향을 바라보고 지향할 수 있는 기회였다.

4 홈스테이

4 홈스테이

12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스테이를 진행했다.

우리가 들어온 지역은 산타크루즈라는 지역으로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농촌이다.

아름답고 조용한 지역으로 첫 인상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홈스테이 가족분들을 비롯하여 이웃 주민들 모두 반겨 주셨다.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다.

생면부지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매순간이 감사했다.



4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풍파 뒤에 찾아온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다.

산타크루즈는 매순간 따뜻했고 많은 것이 감사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매순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보살펴주셨다.

적게 먹는 내가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항상 먹을 것을 챙겨 주셨다. 난 항상 양껏 먹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다.

한국 돌아가서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잊지 못할 것 같다.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을 분에 넘치게 받았다.

4 홈스테이

결국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은 같고 겉모습만 다를 뿐이었다.

홈스테이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별로 남지 않았기에 그 동안의 소란했던 시절들이 끝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많은 것들을 잊고 살겠지만 홈스테이는 잊지 못할 것 같다. 많은 마음들을 받고 살았기에 항상 어딘가 한 구석에 되새겨질 기억들이다.

생면부지의 나를 아껴 주셨음에 감사한다.

나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



4 홈스테이



나나이에게 따뜻함과 감사함을 배우고 타타이와 꾸야들에게 유쾌함과 책임감을 배웠다. 가끔 무서울 정도로 행복하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꾸야 레이몬의 부인인 아떼 비아가 홍콩에 갈 땐 서로 눈물을 보이며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주는 동시에 나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손으로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일상이 이제는 내게 너무도 당연해져버린 행복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된다. 매일 일기장을 넘기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날 부르는 'Dencio' 라는 이름이 좋아져 버렸다.

4 홈스테이



한국 가족, 친척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매번 언니들, 여동생들과 친해지는 것을 힘들어했었다. 그만큼 다가가는 방법도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서툴렀다.

그러나, 홈스테이 기간 동안 두명의 언니들과 살면서 너무 행복했다. 친한 언니가 생긴 기분이 아닌 친언니가 생긴 기분이다.

6시가 되면 이곳은 해가 진다. 어두운 길을 나의 친구 마일린과 레이카는 두 손을 서로 나누어서 꼭 잡아준다.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나에게 가족의 품을 그림계 해준 필리핀 가족들, 나에게 Ate Rosita 라고 하면서 다가와준 아이들, 매일 다른 색의 밤하늘을 보여주는 하늘. 참, 감사하다.



5 Pang-Good Work Camp

5 Pang-Good Work Camp

아래 마을 논두렁 쪽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진다. 특히 우기때는 굉장히 다니기 힘들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징검다리 설치를 시작했다.

Pang-Good 친구들과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 나갔다.

더운 날씨 속에 힘든 작업이 이어졌지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동하며 이어 나갔다.

캠ป์의 끝까지 전부 다 완성하지 못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작업을 이어서 하셨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힘써서 이뤄낸 것들은 굉장히 값지다.



5 Pang-Good Work Camp

산타 크루즈는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상대적으로 귀하다.

펌프에서 물을 많이 길어서 사용하는데 펌프가 먼 가정들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

그래서 윗 마을에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하기 시작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야 하는 기약 없는 작업이지만 서로 도와가며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역시 캠프 기간 내에는 끝내지 못하였다.



5 Pang-Good Work Camp



Korean Food Festival을 진행했다.

장장 4시간 정도에 걸쳐 한국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다.

준비 및 조리시간이 길어서 힘들었지만 많은 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뜻 깊은 자리였다.

불편한 공간과 부족한 재료와 조리 도구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서로 도와주어서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일을 분배하고 다른 팀일지라도 도우며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5 Pang-Good Work Camp

청소년 친구들이 마음과 시간을 내서 이 곳까지 와 줬음에 감사했다. 단 2주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해낼 수 있었다.

메인 프로젝트 2개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감을 했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이끌어주고 처음 온 친구들은 잘 따라가면서 시너지를 냈다.

크고 대단한 활동들은 아닐지라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같이 하며 좋은 기억들을 만들었다.

2주 동안의 청소년 친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6 안양 그리고 Amelia

6 안양 그리고 Amelia

심한 Denggi열로 일찍 귀국하게 된 Amelia.

한 달간 한국에서의 생활을 재정비하고 쉬며 앞으로 라온아피의 삶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어렵지만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다.
안양 YMCA에서 별꽃반 아이들과 또 다른 꽃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억해주었던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가야 할 때면 함께 더 있어달라 떼쓰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다.

1달간 함께했던 놀이터에서 놀기, 체험학습, 실뜨기, 요리교실 등
매 순간 나와 함께 하려던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이 아이들을 보고있자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준 내게 오늘이 참 고맙다.





7

에세이

7 에세이

Lucas

어느 덧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 짧은 5개월의 시간동안 이 시간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느 덧 모두 지나간 일들이 되었다. 다사다난한 생활을 했지만 난 여전히. 지난 생활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다. 많은 것들이 지나간 자리는 복잡한 흔적들만 남아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뭘 해도 복잡한 상황에 많은 생각들을 요구하는 것들이었고 매사가 선택하기 어려웠다. 뭘 해도 애매한 상황과 흐리멍텅한 결과로 개운하고 만족스러웠던 적이 거의 없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희미하다. 무기력한 나날들의 연속이 길어졌었다. 내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해 수 없이 질문했지만 나온 대답은 의미가 없었다. 지속적인 위화감은 많은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었다. 애초에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대항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 내 자신은 초라했고 보잘 것 없었다. 문득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과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허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심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인지 너무 헷갈린다. 세상에는 허상이 너무 많고 내가 경험했다고 믿는 모든 것이 허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냥 헛되지는 않았고 나름의 의의와 의미, 결과로 살아간다. 진짜를 찾아 헤매지만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응원하고 바라며 서로 도와준다는 것은 단지 헛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다.

7 에세이

Amelia

‘수고했다. 애썼다.’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한 없이 감사함과 고마움도 더불어서. 학생과 이제 사회생활 준비를 앞둔 그 중간 점에 있어 어찌면 가장 마지막으로 순수한 나의 청춘에, 6개월간의 큰 사랑이 힘이 되었다. 나만큼 아니 우리만큼 버라이어티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만큼 힘든 순간들도 많았다.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 이 곳에 다 표현할 수 있을까. 6개월간 에세이를 적으며 늘 고마운 마음만을 표현했던 것 같다. 어떤 활동들 보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늘 아깝지 않게 표현하도록 사랑해주었다. 언어 실력도, 실무에서 역량도 물론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6개월간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다시도 어찌면 이 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순간이 내게 너무 귀하다.

얼마 전, 덤프사이트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했다 소식을 들었다. 제대로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온 내게 늘 덤프사이트 아이들은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주소식은 한 편으로 다행이란 생각과 또 다른 걱정이 앞섰다. 그런 내게 늘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인화한 40장의 사진 속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든 예쁘게 성장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믿고 다시 만나는 날을 당기는 일. 어떻게든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 당장 ‘다시’란 없어도 60억이란 인구 속에서 우린 그렇게 귀하게 인연이 되었고, 우리 인연이 귀한 만큼 다음 만남은 더 소중할 것임을 믿는다. 큰 사랑과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용기. 6개월간 나는 그 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나는 성장했다.

7 에세이

Dencio

1월에 빵굽활동이 끝난 것을 시작으로 덤프 사이트, 푸가로, 홈스테이 활동 등 모든 팡 다시 난 Y와의 활동이 줄줄이 막을 내렸다. 9월에 나를 가득 채웠던 설렘이 이제는 모두 아쉬움으로 변했다. 지금은 홈스테이의 여운이 강하게 남아있고 함께 있는 현지 친구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우울하다. 필리핀에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와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많은 현지 친구들과 팀원들을 사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또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배움. 그것에도 감사하다. 생각보다 많이 길었던 라온아띠 활동이었다. 그런데 에세이 한 장에 그동안 느꼈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모두 담아내라니. 무리인 것 같다. 지금 드는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아마 서서히,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정리될 것이다. 필리핀에서 배운 수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7 에세이

Rosita

5개월 시간 참 빠르다. 요즘은 하루 하루가 아까울 정도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 움직이는데 야속할 뿐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난 시간이 참 안 간다고 생각했다. 너무 안가서 답답할 정도였다. 지금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왜 놀지 않았을까? 이 친구들과 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언제나 아쉬움은 존재한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아쉬움에서 더 나아가 후회를 하는 중이다. 지금처럼 먼저 더 다가서지 못 했을까? 하는 후회 말이다. 이들은 항상 열려 있는데... 왜 주저했지... 아쉬움이 크다. 의외로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고 갔을 지도 모른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이들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다. 예전에는 좀 있으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설렘. 지금은 그냥 싫다. 더 있고 싶어 졌다. 더 살고 싶어 졌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거나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 하고 간 활동지가 아쉬운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싶다. 지금이 너무 좋다. 매번 좋을 때 즈음 이별이 찾아오는 것 같다. 영원한 이별은 없다고 믿고 싶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기에 웃으면서 또 다른 일상에 마주해보려고 한다.

짧은 글로 나의 5개월을 설명하기란 어렵다. 현재 난 아직 생각을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야 나답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의 내가 좋다. 그나마 마지막을 잘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다. 그렇기에 또 다른 꿈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라온아띠 5개월 참 나를 약하게도 만들었다가 다시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여전히 참 어렵다.



Salamat Po